

'생산적인 성취감'에 '입학수속' 장사진 이뤄

“소득있는 소일·생산적인 성취감.”

요즘 양천구청 산하 부녀교실 양재반에 다니고 있는 주부학생들은 표어같은 이 말을 “가슴에 훈장처럼 달고 다닌다”고 말한다.

3개월 마다 한번씩 양천구청에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신새벽에 부녀교실앞에 1~2백명의 주부들이 줄을 선다.

한겨울 추위에도 선착순 마감에 맞춰 '입학수속'을 밟기 위해서다.

부녀교실에 마련된 강좌는 미용, 급식조리, 도자기, 목공

예, 수직공예, 양재, 꽃꽂이, 홈패션, 묵화, 서예, 지점토 등.

“작년부터 주부들이 원하는 강좌를 설문조사한 후 마련된 강좌들”이란 관계자의 말이

▼양천구 부녀교실 양재반 회원들은 지난해 작품전시회를 열었다.



여느 구청과 다른 면모를 보여 준다.

이중 양재반의 인기는 “대학 들어가기 보다 힘들어요”라는 주부학생의 표현대로 대단하다.

맨처음에는 바느질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수강생이 많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업으로 하는 일이라는 바느질에 대한 편견을 벗겨내기 위해 양재반 김정자(34) 지도강사는 개별방문을 통해 수강생을 확보했다.

양재반의 6기 수강생 조정에(46) 씨는 미싱 앞에 앉아본 적도 없는 그야말로 햇병아리였

다. 처음부터 바늘에 실 꿰는 법부터 배우고 홈질, 박음질 등 바느질의 기본부터 배워야 했다.

그러나 지금 조 씨는 근 2년 동안 백화점에서 옷을 사본 적이 없다. 아이들 옷이며 남편 옷은 물론 자신의 옷까지도 손수 지어 입는다.

동대문 시장에서 도매로 천을 끊어다 제도하고 재단해 옷을 지으면 어지간한 코트를 비롯해 외출복까지 2,3만원이면 “뒤집어쓰기”때문에 옷 살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영순(45) 씨는 “양재를 배운 이후로 한번도 학교 선생님들께 촌지를 건넨 적이 없게 되었다”는 동문서답으로 그간의 성과를 밝힌다.

미싱 배운 것을 응용해 매 학기 때마다 방식이며 쿠션 등을 만들어 아들손에 들려

보냈기 때문이다.

황 씨의 경우 양재반 출석은 3대 독자 외며느리로 살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세상을 향한 ‘첫 외출’이었다는 점에서 도 남다르다.

1년만에 가진 정기전시회에서 황 씨는 눈시울을 붉힐 정도로 감격했다고. 처음으로 가져본 자기 일에 대한 애착이 요즘 황 씨를 부산스럽게 만들고 있단다.친정 식구들에게 모두 한벌씩 해주고 나니 친구들이 걸리고, 친구들 해주고 나니 그동안 소홀히 했던 어른들이 아쉬워 손 쉴 틈이 없는 것이다.

이런 모습들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양재반 수강을 희망해 담당자들의 반가움을 사고 있다.

현재 양천구청 양재반은 13기를 모집하고 있다.